

THE UNITED

INCHEON UNITED F.C. 2015 THE OFFICIAL MATCHDAY PROGRAM OF INCHEON UNITED F.C.



TODAY MATCH



VS



인천유나이티드

대전시민즌

06.28(일) 오후 6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INTERVIEW

인천의 푸른늑대

NO.25 박대한

UTD NEWS

극한알바,
일일 유티가 되다!



인천유나이티드
9위 / 4승 8무 5패
(6월 21일 기준)

VS



대전시티즌
12위 / 1승 5무 11패
(6월 21일 기준)

역대 통산 상대전적
(인천 기준)

18승

6무

5패

예상 포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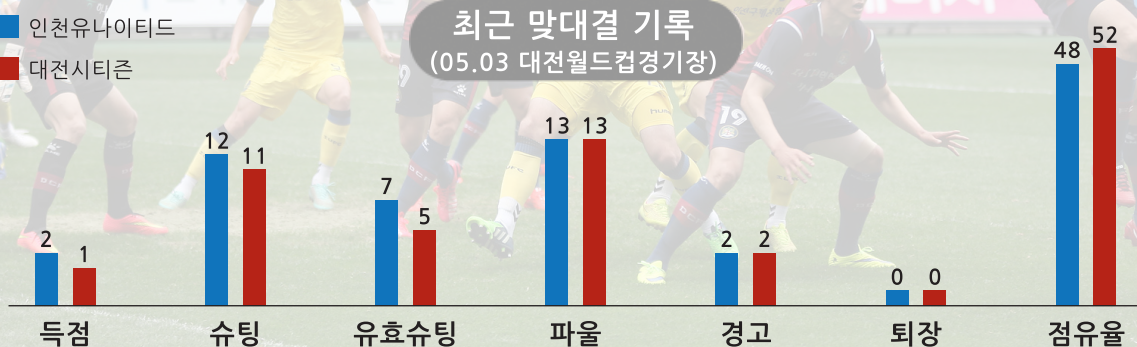
최근 5경기 결과

05.31 H		수원삼성블루윙즈	1:1 무
06.03 A		FC서울	0:1 패
06.06 H		전남드래곤즈	1:2 패
06.17 A		포항스틸러스	2:0 승
06.21 A		울산현대	1:1 무

06.03 H		수원삼성블루윙즈	1:2 패
06.06 H		부산아이파크	0:0 무
06.10 H		FC서울	1:2 패
06.17 H		광주FC	0:0 무
06.21 H		제주유나이티드	2:2 무

최근 맞대결 기록
(05.03 대전월드컵경기장)

■ 인천유나이티드
■ 대전시티즌





인천의 도약, 대전전 승리 발판 삼는다

인천유나이티드가 대전시티즌을 상대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인천은 최근 포항스틸러스, 울산현대 등 강호들과 원정에서 1승 1무로 상승세를 탔다. 또한 항상 인천이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대전을 만남점도 긍정적이다. 인천은 대전을 상대로 역대 통산 전적에서 18승 6무 5패로 압도적이며, 올 시즌 첫 맞대결인 지난 5월 3일 원정에서 2-1로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다. 인천은 대전과의 이번 홈경기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확실한 기선 제압이 승리를 가져온다

대전은 올 시즌 1승만 거뒀고, 최근 9경기 연속 무승(3무 6패)로 좀처럼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수 양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최문식 감독이 조진호 전 감독에 이어 지휘봉을 잡으며 팀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승리를 노리는 인천으로서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전부터 선제골과 함께 확실히 기선 제압을 한다면, 대전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확실한 기선 제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최전방 공격수 케빈부터 시작해 이천수, 김인성, 조수철, 김동석 등 2선 공격진과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의 활약은 늑대축구의 날카로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요니치를 중심으로 안정된 수비 역시 대전전 승리에 큰 플러스가 될 것이다.

친정팀 골문 향해 조준하는 케빈

인천은 무엇보다 케빈이 이번 대전전에 나설 수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난 9라운드 경고 누적으로 대전전에 나서지 못했던 케빈은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친정팀인 대전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칠 강한 동기부여 또한 가지고 있다.

대전 수비수들 입장에서 케빈은 두려운 상대다. 큰 체구에 공중볼 경합 능력과 몸싸움이 강해 이를 막다보면 수비수들이 후반전에 체력이 저하될 수 있다.



케빈은 김인성, 이천수 같은 빠른 공격수들의 움직임까지 살려주고 있다. 지난 6월 17일 포항전에서 득점포까지 가동했기에 더욱 두려울 수 밖에 없다. 케빈의 거침없는 활약이 대전의 골망을 시원하게 흔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관전 포인트★

- 케빈, 친정팀 대전과 올해 첫 만남
- 케빈 vs 아드리انو, 외국인 공격수 대결
- 홈에서 강한 면모 유지할까?
- 대전 잡고 승점차이 벌릴 수 있을까?

- 올 시즌 첫 만남 패배 설욕전
- 최근 9경기 연속 무승(3무 6패) 탈출 도전
- 리그 2승 달성 절실
- 상대전적 열세 극복할 수 있을까?



인천의 푸른늑대 박대한

“승리 후 팬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싶다.”

No.25 박대한

생년월일 1991.05.01
신체조건 175cm, 70kg

출신학교
보인중-보인고-성균관대

선수경력
2014 강원FC
2015 ~ 현재 인천유나이티드



Q. 인천 입단 후 완벽히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지난 시즌 강원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프로의 벽을 실감하며 힘들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재계약이 어긋나고 인천에서 테스트를 봤는데 코칭스태프께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절 선택해주신 코칭스태프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Q. 올해 인천의 전술상 측면 수비수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경기 후 체중이 2~3kg씩 빠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죠. 지친 몸은 반신욕을 하면서 회복하고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도 밥이 최고의 보약이죠(웃음).

Q.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바로 옆에서 뛰고 있는 (김)진환이 형과 가장 호흡이 잘 맞고 개인적으로도 친해요. 요즘에는 둘이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카페도 가요. (권)완규도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워낙 친하고 친함을 넘어 함께 동거(?) 중이에요.

Q. 수비하기 까다로운 선수가 있었나요?

포항에서 뛰고 있는 티아고 선수가 막기 힘들었어요. 지난 경기 때 페널티킥도 내줬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영상을 보며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완벽하게 막아내겠습니다. (* 인터뷰 후 열린 6/17 포항 원정경기에서 박대환은 티아고를 골공 묶으며 인천의 2:0 승리에 기여했다.)

Q.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활동량과 투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단점은 오른 발잡이라 왼발 크로스가 약한 것이지만 김성일 코치님께서 자세도 잡아

주시고 조연도 해주셔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Q. 외국인 선수들 중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필립 람 선수요. 공을 다루는 센스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뮌헨과 독일 대표팀의 주장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Q. 지난 5월 3일 대전 원정에서 프로 데뷔 첫 득점을 넣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뜨거웠죠.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골이었어요. 올 시즌 리그 첫 승리, 김도훈 감독님 데뷔 첫 승 그리고 제 프로 데뷔 골이었잖아요. 축하한다고 연락주신 지인들도 많았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Q. 이번 상대가 대전입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홈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리 후 팬들과 함께 만세삼창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끝으로 홈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팬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 웃고 즐길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 = 정재원 UTD기자 (elino5@naver.com)

사진 = 이명석 UTD기자 (moungsuk@hanmail.net),

이상훈 UTD기자 (mukang1@nate.com)



극한알바, 일일 두루미(유티)가 되다!

해당 기사는 최하나 UTD기자의 6월 6일 전남전 당일 유티 아르바이트 체험 후 작성된 기사입니다.

두루미와 썸을 탔다. 나는 사람이지만 탈을 쓰고 유티가 된 이상 두루미가 되어야했다. 먼저 유니폼을 입은 뒤 양말을 신고 탈을 쓰고 인형발까지 장착. 그 다음 머리가 빠져나오지 않게 하나로 묶어 올리고 하얀 장갑을 끼서 손을 가린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을 하지 않기. 하지만 초보인 나는 자꾸만 말이 튀어나왔다. 특히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실수로 부딪힐 때는 더 그랬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입을 앙다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극한알바... 그 명성대로

인형탈 알바를 포털검색창에 치기만 하면 극한알바라며 치를 떠는 후기들이 넘쳐났다. 솔직히 그 말에는 과장이 섞여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선택권이 없으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정 하려거든 여름은 꼭 피하세요.’

하지만 그 조언마저도 귀담아 듣지 못 한 나는 청개구리였다. 다행이라면 다소 늦은 오후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점이였다. 하지만 옷을 착용하고 보니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걷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리고 조금만 뛰거나 격렬한 동작을 하면 숨이 막혀왔다.

탈을 쓰면 양쪽 눈에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있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한 쪽 구멍에 두 눈이 위치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고개를 돌려주어야 했다.

또한 인형발의 구멍은 너무 커서 신발을 신은채로 착용해야 하는데 이 건 마치 꼬마가 삼촌신발을 신은 모양새와 다를 바가 없었다. 덕분에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면 험뎡거리는 발 때문에 다른 유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유티의 본분대로 발랄하게 방정을 떨거나 뛰면 숨이 막혀왔다. 거울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얼굴이 달아올라 화끈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인형탈의 명암

유티로 변신한 동안 좋았던 점은 역시 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였다. 사람이었을 때는 듣지 못했던 ‘귀엽다’는 말과 ‘사진찍자’는 권유를 수없이 들었다. 두루미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였다.

하지만 마스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꼬집거나 때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고 어른들은 성별을 맞춰보려고 하거나 툭툭 치는 경우가 많았다. 도가 지나치면 탈을 벗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힘든 두루미 체험 중 가졌던 선입견을 깨는 두 사람이 나타났다. 툭툭튀는 언행으로 주목받아 당돌하고 거침없는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던 김도혁 선수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였다. 위밍업을 하고 들어오던 그는 구석에 있던 유티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에스코트키즈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데 어디에 설치 몰라 당황하고 있는 나를 카메라에 잘 나오는 위치에 세워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SNS로 팬들과 소통하는 딸바보 이천수 선수였다.

배려와 매너를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인형탈을 쓰고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실컷 춤추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이 경험이 좋다거나 싫다는 한 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미묘했다.

어쩌면 그건 나 또한 유티를 인형으로만 바라봤다는 걸 입증하는 지도 몰랐다. 결국 유티는 사람이 하는 일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티가 되어서 좋았던 점은 바로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여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차갑게 물을 두 통 열려 건네라는 책의 구절은 바로 당사자가 되어 경험해봐야만 나올 수 있는 조언이라는 걸 몸소 깨달았다. 내가 되어보니 유티에게 필요한 건 바로 관중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와 매너였다.

글 = 최하나 UTD기자 (spring860@naver.com)

사진 = 이명석 UTD기자 (moungsuk@hanmail.net)



김도훈 감독



이기형 수석코치



김성일 코치



박성철 코치



김이섭 GK코치



이승재 트레이너



이동원 트레이너

① 포지션
② 생년월일
③ 키 / 몸무게
④ 출신교 /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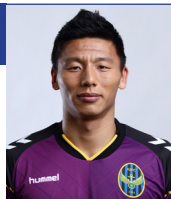


양승민 트레이너



1 유현
YOO HYUN

- ① GK
- ② 1984-08-01
- ③ 184cm/82kg
- ④ 중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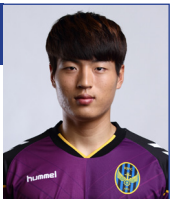
21 조수혁
JO SUHUK

- ① GK
- ② 1987-03-18
- ③ 187cm/80kg
- ④ 건국대



31 이태희
LEE TAEHUI

- ① GK
- ② 1995-04-26
- ③ 187cm/78kg
- ④ 대건고



2 권완규
KWON WANKYOO

- ① DF
- ② 1991-11-20
- ③ 175cm/61kg
- ④ 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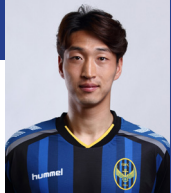
3 김용환
KIM YONG HWAN

- ① DF
- ② 1993-05-25
- ③ 176cm/64kg
- ④ 송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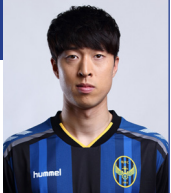
5 김진환
KIM JINHWAN

- ① DF
- ② 1989-03-01
- ③ 186cm/78kg
- ④ 경희대



6 윤주열
YOON JU YOOL

- ① DF
- ② 1992-01-08
- ③ 188cm/77kg
- ④ 인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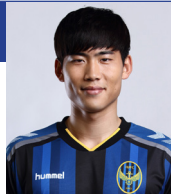
13 용재현
YONG JAE HYUN

- ① DF
- ② 1988-07-19
- ③ 179cm/75kg
- ④ 건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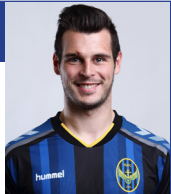
15 김대중
KIM DAEJUNG

- ① DF
- ② 1992-10-13
- ③ 190cm/85kg
- ④ 홍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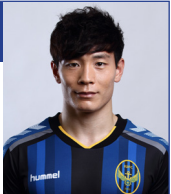
20 요니치
MATEJ JONJIC

- ① DF
- ② 1991-01-29
- ③ 187cm/83kg
- ④ 크로아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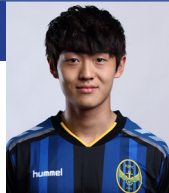
25 박대환
PARK DAE HAN

- ① DF
- ② 1991-05-01
- ③ 170cm/66kg
- ④ 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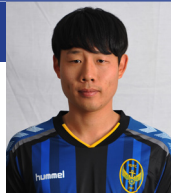
28 백승원
BAEK SEUNGWON

- ① DF
- ② 1992-04-18
- ③ 180cm/75kg
- ④ 광운대



44 지병주
JI BYEONG JOO

- ① DF
- ② 1990-03-20
- ③ 180cm/73kg
- ④ 인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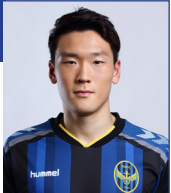
77 이윤표
LEE YUN PYO

- ① DF
- ② 1984-09-04
- ③ 184cm/79kg
- ④ 한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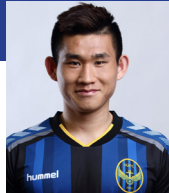
4 김원식
KIM WON SIK

- ① MF
- ② 1991-11-05
- ③ 185cm/75kg
- ④ 동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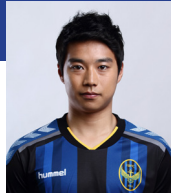
7 김도혁
KIM DOHYEOK

- ① MF
- ② 1992-02-08
- ③ 174cm/69kg
- ④ 연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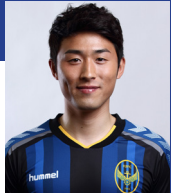
8 안진범
AN JIN BEOM

- ① MF
- ② 1992-03-10
- ③ 175cm/64kg
- ④ 고려대



14 김재웅
KIM JAEWOONG

- ① MF
- ② 1988-01-01
- ③ 173cm/68kg
- ④ 경희대



22 김동석
KIM DONGSUK

- ① MF
- ② 1987-03-26
- ③ 174cm/68kg
- ④ 용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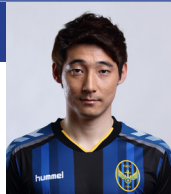
23 윤상호
YOON SANGHO

- ① MF
- ② 1992-06-04
- ③ 179cm/64kg
- ④ 호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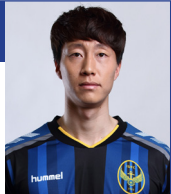
24 박세직
PARK SEJIK

- ① MF
- ② 1989-05-25
- ③ 178cm/73kg
- ④ 한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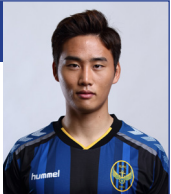
26 조수철
CHO SOOCHUL

- ① MF
- ② 1990-10-30
- ③ 178cm/64kg
- ④ 우석대



29 이종권
LEE JOONGKWON

- ① MF
- ② 1992-01-01
- ③ 175cm/68kg
- ④ 명지대



10 이천수
LEE CHUN SOO

- ① FW
- ② 1981-07-09
- ③ 174cm/65kg
- ④ 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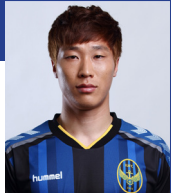
11 김인성
KIM IN SUNG

- ① FW
- ② 1989-09-09
- ③ 180cm/74kg
- ④ 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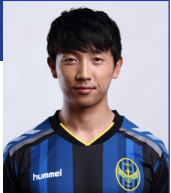
16 이성우
LEE SEONG WOO

- ① FW
- ② 1992-07-11
- ③ 176cm/66kg
- ④ 단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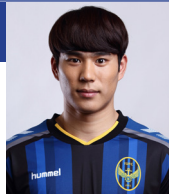
17 김대경
KIM DAEKYUNG

- ① FW
- ② 1991-09-02
- ③ 179cm/70kg
- ④ 송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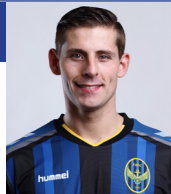
18 진성욱
JIN SEONG UK

- ① FW
- ② 1993-12-16
- ③ 183cm/78kg
- ④ 대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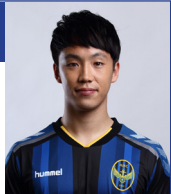
19 케빈
KEVIN ORIS

- ① FW
- ② 1984-12-06
- ③ 192cm/95kg
- ④ 벨기에



27 이진욱
LEE JINUK

- ① FW
- ② 1992-09-11
- ③ 175cm/60kg
- ④ 관동대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SNS

facebook

<http://www.facebook.com/incheonutd2003>

twitter

<http://twitter.com/incheonutd>

